

‘항노화·수명 연장’ 새 지평 열린다 K-제약·바이오, R&D 성과 줄이어

GLP-1 약물 연구개발 본격화
한미약품 대사질환 치료제 확대
JW중외제약 제형혁신 역량 집중
HK이노엔 차별화 기전 승부수

비만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약물이 항노화 및 수명 연장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체중 감량, 혈당 조절에 국한되지 않고 생체 나이를 늦추는 핵심 요법으로 개발되면서다. 단기 다이어트에서 건강 수명 연장으로 연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제약사들도 R&D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GLP-1 약물의 노화 지연 효과를 입증한 동물 실험 논

문이 공개됐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연구진이 인간의 60세에 해당하는 노령 쥐에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당뇨 치료제 ‘오젠포’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여했다. 그 결과, 노령 쥐 평균 수명이 대조군 대비 12% 늘었다. 당 대사 능력, 근육 기능 등도 개선됐고 체내 노화를 촉진하는 염증성 세포 반응도 크게 완화됐다. 연구진은 GLP-1 활성화가 장수 요법으로 알려진 칼로리 제한의 핵심 메커니즘을 모방하는 동시에 이를 능가하는 유익한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이미 비만 치료제를 활용해 인간의 생물학적 노화를 지연시키는 단계에 진입한 인체 임상도 있다. 미국 텍사스대 겔버스턴 의과대학 연구진은 55~70세 성인을 대

상으로 임상 2상에 착수했다. 미국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젠티온’과 ‘마운자로’ 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가 생체 나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26년 2월 시작해 2028년 1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국내 기업 역시 GLP-1 약물이 노화 관련 질환을 관리하는 영역에서 차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독자 개발한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통합 대사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첫 국산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출시한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이며 한국인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향후 에페글레나타이드가 발매됨에 따라 처방 데이터를 확보해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적응증을 지속



한미약품 연구원들이 신약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그룹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당뇨병 임상 3상에 돌입했다. 해당 임상은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리플로진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병용 투여해 위약 대비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 평가한다. 임상 종료 시점은 오는 2028년이다.

후발주자인 JW중외제약은 제형 혁신에 중점을 둔다. 약물 투여 횟수는 줄이고 주기는 늘림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 영역으로 개발 범위를 넓히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팔글루타이드’의 비만 및 2형 당뇨병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연이어 신청했다. 보팔글루타이드는 GLP-1 수용체 작용제다. 2주에 한번 투여하는 피하주사 제형을 갖춰 평생 또는 장기간 혈당과 체중을 관리해야 하는 환자의 투약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HK이노엔은 기존 치료제 대비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한 차별화 기전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HK이노엔의 ‘에크노글루타이드’는 세계 최초 cAMP 편향 GLP-1 수용체 작용제다. 신호 전달 선택성을 높여 위장관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에크노글루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를 직접 비교한 임상 2상을 통해 경쟁력을 입증했다. 에크노글루타이드의 20주차 평균 체중 감소율이 세마글루타이드 대비 35% 높았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항노화 시장 규모는 차세대 영역인 만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다양한 질환이 맞물리면서 거대 영역으로 커지고 있어 부작용을 줄이는 우수한 내약성 등 보다 고도화된 연구개발 경험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미래AX공학관, 연구 혁신의 시작이 되다

미래 AX 공학관에서 펼쳐질 초격차 연구 혁신
중앙대학교는 인류의 내일을 바꿀 ‘메타 밸류(Meta-Value)’를 창출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첨단 교육 플랫폼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당신의 위대한 첫걸음을 지원합니다.

■ 지식 창출로 미래를 선도

- 2026학년도 상반기 정부재정지원사업 1,927억 수주
- BK21사업 18개, 선도연구센터(ERC, SRC) 5개, ICT연구센터 4개, 중점연구소 2개 유치

■ 첨단기술 기반 학생 성장 지원

- 교육부 첨단분야 정원 증원 승인 학과
[일반대학원 - AI학과/융합보안학과 등 10개 학과, 첨단영상대학원 - 메타버스융합학과]
- 창의ICT공과대학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설

■ AX(미래)전환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 생태계

- 반도체 클린룸과 GPU 서버실을 갖춘 ‘미래 AX 공학관’ 건립
- 사람·학문·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집단지향 연구 공유 플랫폼’ 구축



미래 AX 공학관 착공(2026)



중앙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6.9.8. (화) ~ 9.11. (금) 18:00까지
https://admission.cau.ac.kr | 02)820-6393



K-기업, 인재 확보 ‘구슬땀’ AI·로봇 등 미래사업 박차

삼성·SK·현대차 등 하반기 채용
사업전략 변화에 맞춘 인재 선점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인재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채용은 인공지능(AI)과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미래 성장사업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는 한편 해외에서는 연구개발(R&D) 인재 확보로 단순 인력 확보가 아닌 사업 전략 변화에 맞춘 필요한 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오는 14일까지 R&D와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6개 부문에서 92개 채용 공고를 냈다.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AI, 로봇틱스 등 미래사업을 주도할 인재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기아 역시 이달 중 하반기 신입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인력 채용과 함께 해외에서 피지컬 AI 인재 확보에도 집중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17~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HMG 테크 토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호세 무노스 현대차 사장, 박민우 첨단차플랫폼본부(AVP)장 사장, 만프레드 하러 연구개발(R&D)본부장 사장 등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 분야 최고 책임자들이 총출동해 회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알릴 방침이다.

LG전자는 오는 13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 지원서를 받는다. HS·MS·VS·ES 등 4개 사업본부와 한국영업본부 등 주요 조직이 참여한다. 로봇틱스와 모빌리티, 스

마트팩토리, 냉난방공조(HVAC) 등 회사가 성장사업으로 육성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인력을 확보한다. 이외 함께 해외 R&D 인재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류재철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미 테크 콘퍼런스’를 주관했다. 류 CEO를 비롯한 경영진은 이달부터 북미 주요 대학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채용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까지 R&D 분야 외국인 경력 사원을 모집을 진행했으며 전체 12개 모집 분야 가운데 9개가 로봇 관련 직무다. 반도체(DS) 부문은 패키지 개발과 회로 설계, 펌·인프라 자동화 분야 인력을 모집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6일 하반기 신입사원 지원서 접수를 마치고 선발 절차에 들어갔다. 설계와 소자, R&D 공정, 패키지 개발, 양산기술 등 AI 반도체 경쟁력을 뒷받침할 23개 직무가 대상이다.

포스코그룹도 오는 16일까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포스코, 포스코인더나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DX,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6개 그룹사의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생산·설비기술부터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경영지원까지 약 60개 직무가 대상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AI 시대 핵심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전자 등 산업 전반에서 미래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점하려는 채용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m@



metro